

# 한국 쌀, 최초 해외 식량원조용 방출

### 애프터(APTERR) 통한 쌀 현물원조 체계 확립 · 공급과잉 겪고 있는 쌀 수급 문제 기여

농산물 원조를 받아왔던 우리나라 쌀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식량 원조용으로 방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급근도 애프터를 통한 쌀 750톤 원조를 지난 11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애프터는 한중일 및 아세안 10개국 이 역내 식량위기 등 비상시 공동 대응을 위해 2013년 3월 설립한 쌀 국제 공공비축제도다. 우리나라는 그해 7월 애프터협정 국회비준을 완료하고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애프터는 태풍, 가뭄 등 비상 상황

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 간 협정가입 시 약정한 쌀 물량을 기준으로 원조성 교역을 촉진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쌀 무상원조도 맡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애프터 사무국에 올해 무상원조사업에 참여국으로 참여를 희망했다.

그간 애프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원국은 미얀마 및 캄보디아, 지원물량은 각각 500톤 및 250톤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전북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원조는 비록 소규모로 이뤄지기는 하지만, 농산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쌀을 원조해 주는 나라로 바뀐 첫 사례일 뿐

만 아니라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쌀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원조용으로 방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남아 지역에 우기가 도래하기 전 원조 절차 마무리를 위해 5월중 수원국 항공기 도착을 목표로, 가공·포장 및 선적 등 필요한 세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여물량은 수원국 현지에 1년간 보관되며 이 기간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이재민에 재해구호용으로 방출되거나, 1년 후 빈곤퇴치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애프터 회원국은 기상재해 등

식량불안상황 시 쌀 79만톤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우리나라 쌀 원조 물량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애프터를 통한 쌀의 유무상 원조에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감으로써 동아시아 식량안보 협력 강화 및 우리나라 국제 제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식량원조 협약(FAC)과 함께 애프터(APTERR)를 통한 쌀 현물원조 체계를 확립해 국내적으로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쌀 수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 농촌진흥청, '한우리 시스템' 활용교육 추진

농촌진흥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보급을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축산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14일 강원도 원주를 시작으로 '한우리 시스템' 활용교육을 추진한다.

'한우리 시스템'은 가축사육부터 출하 뒤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력정보, 축산물등급판정 정보, 헬통정보 등을 별도의 입력 없이 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전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9월까지 12회에 걸쳐 한우와 돼지를 사육하는 271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4년 '한우·비육우'를 시작으로 2016년 '돼지'까지 주요 축종의 한우리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

또한, 농장의 주요 정보인 암수 보유현황, 번식간격, 육질등급, 도체중 등을 그래프와 표로 볼 수 있도록 경

영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외에도 농장주가 가축 당 소득과 비용을 계산하기 쉽도록 마리당 사료비, 약품비, 감가상각비, 소득 등을 자동계산하고, 전국 평균과 비교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기능을 강화했다.

농촌진흥청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한우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가축 사육과 관련된 통합적인 정보를 얻고,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 등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 상황을 고려해 질병 종식 이후 '한우리 시스템' 활용교육 수요조사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일정은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063-238-7217)로 문의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 이스타항공, 대학생 서포터즈 다채로운 활동 전개

### 홍보 서포터즈 '윙스타'와 정비본부 체험 프로그램 진행

이스타항공이 항공직무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 서포터즈들의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대학생 홍보서포터즈 '윙스타'를 통해 이스타항공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젊은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이스타항공의 정비본부 견학 체험에서는 9명의 서포터즈들이 정비본부를 직접 방문해, 항공 정비 분야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B737NG 항공기 내104의부 구조 견학 및 정비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정비 분야의 기초를 교육받았다.

또한 항공기의 주요 부품 중의 하나인 타이어 정비를 담당하는 타이어샵을 방문해 실습체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은 24시간 체계적이고 철저한 정비시스템을 통해 무사고

운항 27만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윙스타 1기 황정현 양은 "평소 생소한 분야인 항공 정비분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체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저비용항공사의 철저한 정비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라고 체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16일까지 정비본부 영상기를 조회 후 감상 후기를 페이스북 댓글로 남겨준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재 이스타항공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istarjet)에 업로드 된 정비본부 영상 콘텐츠는 조회수 2만회를 돌파하며 고객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영상을 조회한 고객들은 '미래의 꿈이 정비사인데 이번 영상을 통



이스타항공이 항공직무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 서포터즈들의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 정비사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 같다. '평소 항공기 외부 모습은 자주 접할 수 있지만 내부에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철저한 항공기 관리가 있었다는 사실에 믿음이 간다. '윙스타 2기에 도전하고 싶다' 등의 열렬적인 댓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평소 항공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는 적기 때문에 대학생 서포터즈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2차 콘텐츠를 생산하여 서포터즈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항공분야를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익산문화알림이 시티투어 여행상품' 나라장터 등재

익산세계유산코스 등 '익산문화알림이 시티투어 여행상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학생들은 물론 각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임중식 전북도청장은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한 백제 역사문화탐방 체험으로 구성된 한 여행서비스 상품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익산시의 여행상품은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등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유산 코스와 보석박물관 등 익산 숨은보석찾기 코스로 구성돼 있다.

이 상품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반·해설해 교육적 효

과가 높고, 지자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해 안전·신뢰성·경제성도 확보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상품을 선택, 직접 납품요구 하도록 하는 등 이용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역사문화탐방 위주의 여행상품으로 구성돼 있어 앞으로 학생들의 여행상품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중식 전북도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보장된 각 지자체별 특색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서비스 조달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경진원, FTA활용 러시아 CIS 지역 진출전략 설명회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FTA활용지원센터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수출지원을 위해 오는 26일 FTA활용을 위한 러시아 CIS 지역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러시아·CIS지역의 유망 시장의 현황 및 해당 지역에 전략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과 다양한 분야의 투자 진출 성공 사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진출의 노하우 및 마케팅 활용 방식, 사후 관리 등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느낄 수 있는 애로 사항과 해결 방안을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40개국

에 수출 중인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의 강의를 재능나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일련의 과정 중 기업에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해 수출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용 기자

### 우정청-원광대,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우정청은 13일 원광대학교에서 양 기관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 사회의 소통문화 확산 및 지성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은, 편지쓰기를 통해 우리 사회 소통문화를 증진하고 인성과 지성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 서 나가는 취지로 진행됐다.

원광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매년 '감사찰함' 편지쓰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북우정청 주관의 '전북 온고을 100만 편지쓰기'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도중 총장은 "건학이념인 '지역경수 도의실현'을 위해서 학생들의 편지쓰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편지는 학생들에게 소통과 공감은 물론 창의와 융합에 있어서도 아주 유연한 매체라고 생각해서 편지쓰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수 청장은 "대학교육의 미래는 지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에 있으며, 편지쓰기야말로 좋은 교육매체이고 원광대학교가 앞장 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성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편지쓰기를 통해 소통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학과 우체국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는 창문입니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임명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